

시·군교육청, 교육지원센터 전환 검토

지역교육계가 술렁인다

인원 감축 등 우려...센터장 지자체 임명설에 혼란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82개의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고 기능을 대폭 축소한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면서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교육지원센터의 자치단체 이관과 센터장의 지자체 임명설까지 흘러나오면서 교육공무원들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교육 공무원들은 정부 방침대로 교육지원센터 전환될 경우 업무의 대폭 축소로 인해 인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짐작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역교육청 기능 조정에 따른 교육청 통폐합 여부, 임여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 서부교육청 한 공무원은 "교과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간에 '살'만 무성하다"며 "그러나 지금의 행정구조 자체가 확 바뀐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직원들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지역교육지원센터 관련 토론 자료집을 나눠 보면서 "자료에 명시된 '2008년 7월1일 시행'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했다.

광주지역 한 교육청 공무원은 "일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 추진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병수 구례교육장은 "교육청이 지원센터로 변화되면 학교 장악력이 없어진다. 교육청에서 인사·예산권을 가져도 일선 학교를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면 주요 업무에 대한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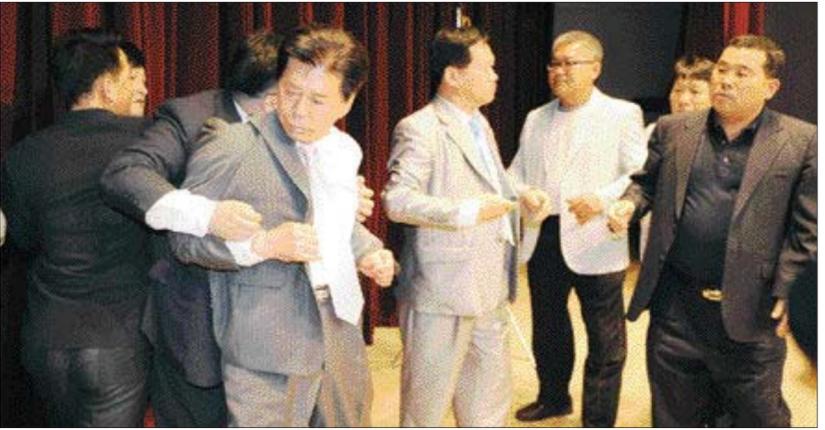
담양지역 한 교육공무원은 "지역센터가 공청회 한번도 없이 시행되는 안된다. 교육청의 행정적 역할이 없어져 대규모 해고사태도 우려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5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원센터의 예산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 동부교육청 한 공무원은 "결국 지자체의 하부조직으로 교육청을 복속시키기 위한 수순이다"며 "교육은 30~40년이 지나야 투자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특수한 분야인데, 짧은 4년 길어봐야 8년 임기의 정치인이

교육에 투자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실제 이뤄진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살하는 정책이다"며 "전국 30만 교육가족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교육감들이 나서 결의문이라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수 목포 교육장도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의 정치적 예측화가 가장 큰 문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5·18 몸싸움'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관 대동홀에서 열린 5·18기념재단 9대 이사장 취임식에서 구속부상자회 소속 회원 20여명이 새 이사장인 윤광장(66)씨의 취임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였다. 한편 윤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재단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고속도로 의문사' 광주 출신 의사 "수면제 장기 복용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광주 제2중부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차량에서 후배 박모(48·골프의류 판매업)씨와 함께 술잔 채 발견된 김모(50·이비인후과 의사)씨가 수면제를 장기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모두 광주광역시 S고 출신 선배후배로 확인됐다.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30일 "김씨의 병원치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불

면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수면제 복용을 장기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수면제는 알약 형태이며 하루 1~2알씩 복용토록 처방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복용한 수면제는 김씨의 체액과 박씨의 구토물, 이들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홍삼드링크에서 공통적으로 검출된 2가지 수면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 수면제가 김씨와 박씨의 사망과 연관됐는 지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씨의 경우 요통 치료 전력이 있지만 수면제를 복용한 병원 치료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와 박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금융계좌를 조회한 결과 특별한 금전 및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번사자들의 조직검사를 마쳤지만 사인을 단정할 수 없는 관계로 현장에서 수거한 주사기와 홍삼드링크, 체액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 감정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인이 규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필성기자 kps@연합뉴스

열차서 남의 옷 털어 4천여만원 슬쩍

열차 옷걸이에 걸여 놓은 옷에서 수표 4천300만원을 훔쳐 사용한 60대 절도범이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권모(66)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여수행 서울행 무궁화 열차에서 승객(72)이 좌석 옆 옷걸이에 걸여놓은 상의에서 수표 4천30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다. 권씨는 전북 전주에서 내린 뒤 S행에서 현금 3천300만원으로 바꾼 후 도박배 등으로 대부분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행기자 golee@

'수학여행 버스 바꿔치기' 광주지검 수사 착수

3년간 계약 서류 조사

광주지역 초·중·고교의 소풍·수학여행 차량 입찰과정에서 일부 전세버스 업체들이 차량 연식을 위조해 참여했다는 의혹(본보 4월 28일자 7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전세버스 업체들 간의 오래된 관행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최근 3년 동안 광주 시내 초·중·고교와 계약을 했던 모든 전세버스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광주지검 형사부(부장 양부남)는 지난달 30일 "일부 전세버스 업체들이 입찰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버스 연식을 최신형인 것처럼

자동차등록증까지 위조하는 불법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광주지역 268개 초·중·고등학교의 최근 3년 동안 소풍·수학여행과 관련한 위탁용역계약 서류와 당시 사용됐던 관광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받았다.

검찰은 관련 서류들을 분석해 등록증 위조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을 벌인 뒤 불법 여부가 드러날 경우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업체와 학교 관계자들 간에 묵인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경찰청, 불법 사금융 등 48명 적발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총 48명을 유사수행위규제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콘도 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8% 이율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64명에게 3억원을 편취한 이모(39)씨를 유사수행위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단속 유형으로는 이자율 제한 대부

행위가 49%로 가장 높았고, 이어 무등록대부업 29%·유사수행위 25%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해 높은 이자를 받아 서민들의 생활고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 등 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최민수씨 흉기 사용 안해'

경찰 잠정 결론

영화배우 최민수씨의 유모(73)씨에 대한 폭행·위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사건 당일 최씨가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씨가 추사가 조사에서 '같은 있었지만 최씨가 칼을(칼집에서) 빼서 위협했는지는 모르겠다. 경황이 없어서 칼을 휘둘렀다고 이야기 했지만 지금은 기억이 지갑을 훔친 혐의다."

최씨와 피해자 유씨는 이날 오전 9시께 경찰에 나와 약 3시간 가량 대질 진문을 받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중견탈린트가 뺨 때렸다'

여성스태프 2명 주장

인자하고 중후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인기 중견 탈린트 A씨가 드라마 촬영장에서 여성 스태프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드라마 의상을 담당하는 프리랜서 B씨와 C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탄현 SBS제작센터에서 A씨로부터 각각 정강이를 걸려차이고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이 입을 의상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의 정강이를 5~6차례 차고, 이후 C씨의 양쪽 뺨을 번갈아 때렸다는 것.

그러나 A씨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모함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연합뉴스

나원침 (7495) 김장동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막 및 상담만행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광역시 : 061) 337-0571

광주 황구렁이 잇단 출현...길조?

○...멸종위기종인 황구렁이가 이들 사이에 광주 도심에서 잇따라 발견돼 화제.

○...광주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북구 연제



동 모 아파트 놀이터 인근 나무에서 황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다니고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신고했다는 것.

○...이번에 발견된 황구렁이는 지난 28일 북구 동림동 모 아파트 나무에서 발견된 황구렁이보다 0.2m 가량 더 길었으며 길이는 1m20cm, 둘레는 7~8cm에 달했다고.

○...119대원들은 "구렁이는 암수가 함께 다니는 습성이 있어 이 구렁이들이 부부일 가능성도 있다"며 "좋은 징조"라고 웃음. /이종행기자 golee@

The Face Shop
The Face Shop
The Face Shop